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이 훈 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대학생 238명에게 편집척도, Zung 우울척도,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자기개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집증은 반응성 특성분노, 분노 억제와 관련이 높았고, 우울은 상태 분노, 낮은 분노 통제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았다. 분노 억제는 편집, 우울 모두와 관련되었으나, 상관이나 설명력은 편집증에서 더 높았다. 우울의 경우, 분노 수준이나 분노표현양식보다는 부정적 자기개념이 더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분노란 적대감의 하위 요소 중 하나로 생리적 각성이 동반된 불쾌한 정서이며 비교적 단기간 지속된다. 반면, 적대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포함하며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Brannon & Feist, 1997; Smith, 1994). 최근까지 분노와 적대감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연구 영역은 건강심리학 영역이었다. Alexander(1939)는 분노 표현 억제가 고혈압과 관련된다고 언급하였고, Friedman과 Rosenman(1974)은 분노와 적개심을 포함하는 A 유형 성격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과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이후 건강심리학 영역에서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에 대한 연구는 심혈관계 장애는 물론(e.g., 민병배, 원호택,

1989; 장문선, 김영환, 1997; Chon, Hahn, Chang, Kim, & Oh, 1998; Everson, Goldberg, Kaplan, Julkunen, & Solomon, 1998; Goldstein, Edelberg, Meier, & Davis, 1988; Mills & Dimsdale, 1993; Sargent, Flora, & Williams, 1999), 암(e.g., 이민선, 1997; Kune, Kune, Watson, & Bahnson, 1991; Morris, Greer, Pettingale, & Watson, 1981), 통증(e.g., Kerns, Rosenberg, & Jacob, 1994; Okifuji, Turk, & Curran, 1999)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분노와 적대감은 편집증에서도 핵심 특성 중 하나이다(APA, 1994; Dowson & Grounds, 1995; Fenigstein, 1994; Manschreck, 1989; Taylor, 1985; Wesse-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 Fax : 033-256-3424 / E-mail : hjlee@sun.hallym.ac.kr

ly, Buchanan, Reed, Cutting, Garety, & Taylor, 1993). 편집증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서 편집 성격자들은 자신의 분노와 적대감을 억제 또는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을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Cameron, 1963; Freud, 1915/1957). 경험적 연구 결과 편집성향이나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적대감 수준이 높았고, 높은 적대감 수준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향과 관련이 있었다(이훈진, 1999; 이훈진, 원호택, 1998). 또한 망상장애 환자의 분노는 공격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Kennedy, Kemp, & Dyer, 1992). 귀인 및 사회적 추론 연구에서는, 편집증이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양식,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편향과 관련된다(사실)가 입증되었다(e.g., 이훈진, 1999; 이훈진, 원호택, 1998; Candido & Romney, 1990;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 Bentall, 1989,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7).

따라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분노와 적대감은 편집증의 핵심 특성이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귀인편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일반인이나 다른 임상 집단보다 더 높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데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분노와 적대감이 편집증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므로, 편집성향자들의 분노 수준과 그 표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편집증과 다른 임상 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분노와 적대감은 편집성격 이외에도 우울과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성격 등 많은 임상 특성과 관련되어 있고(APA, 1994), 구체적인 분노 및 그 표현양식이 아닌 전반적인 적대감 수준만을 비교했을 때 집단간에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Brannon & Feist, 1997; Smith, 1994). 실제로 편집증 집단과

우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적대감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이훈진, 1999; 이훈진과 원호택, 1998).

분노와 적대감을 공유하는 임상 증상 중 편집증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증상은 우울이다. MacKinnon과 Mischels(1971)은 편집증의 기저에 우울이 있다고 했으며,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증이 우울의 위장된 형태라고 주장했다. Candido와 Romney(1990), Bentall, Kinderman 및 Kaney(1994)도 편집증과 우울증이 같은 원인, 즉 불쾌한 기분에서 시작되며 방어적 경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였고, 편집증 집단의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두 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유용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편집증과 우울이 부정적 자기개념, 높은 적대감 등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타인개념, 귀인양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1999; 이훈진, 원호택, 1997, 1998; Candido & Romney, 1990;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 Bentall, 1989,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7). 즉, 우울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편집증 집단은 자신에 비해 타인을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우울 집단과 반대로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을 하였다. 그러나 분노 유형과 분노표현양식면에서 편집증과 우울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우울은 상실된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와 적개심이 자신 내부의 대상, 즉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결과로 가정되었다(Abraham, 1911/1985; Freud, 1917/1985). 이런 역동적 기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은 충분치 않지만, 이훈진(1999), 이훈진과 원호택(1998), Fava(1998), 그리고 Fava와 Rosenbaum(1999)의 연구 결과 우울증 집단은 높은 적대감과 분노를 보였다. Fava(1998), Fava와 Rosenbaum(1999)은 우울증 환자의 30~40%가 분노발작(anger attack)을 보인다고 보고했고, Okifuji 등(1999)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우울 및 통증과 관련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Brody, Haaga, Kirk 및 Solomon

(1999)은 우울 집단이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분노, 즉 분노 억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편집 성격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분노 억제가 지속되다가 상황과 자극에 따라 폭발적인 분노 표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Dowson & Grounds, 1995; Millon & Davis, 1996). 따라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편집증과 우울 모두 일반적인 분노표현양식은 분노 억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우울과 편집증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각 증상 중 하나에 기초해 집단을 선별했기 때문에, 우울과 편집증의 상호 관련성과 상호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분노 유형과 표현 양식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집성향자들의 분노 유형과 분노 표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편집증과 관련이 많다고 가정되어 온 우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표현 양식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두 임상 증상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더해, 선행 연구들에서 편집증과 우울 모두에서 핵심 변인으로 밝혀진 자기개념이 분노표현 양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분노표현양식이 자기개념과 별도로 편집증 및 우울을 설명하는지, 그 상대적인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개념질문지도 함께 실시하였다.

방 법

피험자

대학생 238명(남 114, 여 124)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도 구

편집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

과 불신, 의심을 중심으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에 따르면,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한국판 Zung 우울척도(한국판 SDS).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을 기술한 20문항(예, 나는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 합치도(α) .79~.80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Chon, Hahn 및 Lee(1998)가 번안, 개발한 척도로 상태 분노(10문항), 특성 분노(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 분노는 다시 기질성 특성분노(5문항), 반응성 특성분노(5문항)로 나누어진다. Chon 등(1998)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를 보면, 내적 합치도(α)는 상태 분노 .90, 기질성 특성분노 .79, 반응성 특성분노 .75, 분노 통제 .81, 분노 표출 .74, 분노 억제 .73이었다.

자기개념 질문지.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와 상관은 .80이었고, 의미미분법을 사용한 서수균(1996)의 자기개념 점수와는 .74의 상관이 있었다.

절 차

한국판 Zung 우울척도, 편집 척도,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자기개념 질문지 순서로 소책자를 만들었으며,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결 과

1) 편집성향 및 우울과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성 차 분석 결과, 우울(남 38.46, 여 42.58), 편집중(남 19.49, 여 24.13), 분노 억제(남 15.18, 여 17.42), 분노 통제(남 21.28, 여 19.88), 자기개념(남 114.79, 여 106.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분석보다는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변인간 상관, 그리고 편집 및 우울 점수를 중심으로 주요 변인들과의 부분상관을 제시한 것이 표 2이다. 표 2의 단순상관계수를 보면, 편집성향은 분노 통제를 제외한 상태 및 특성 분노 점수,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기개념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 = -.41, p < .001$)을 보였다. 우울 점수의 경우, 편집성향과 거의 같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지만, 분노 통제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편집성향이 분노 통제와 상관이 없는데 반해($r = .02, ns$), 우울은 $-.23(p < .001)$ 의 유의한 역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분노 통제가 우울과 편집성향을 구분 짓는 핵심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통제에 어려움을 보였다. 자기개념의 경우 편집 및 우울 점수와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고(각각 $-.41$ 과 $-.61, p < .001$), 분노 통제($r = .29, p < .001$)를 제외한 다른 분노 및 분노표현 측정치들과도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개념이 높고 긍정적일수록 분노 수준이 낮고, 분노 통제를 잘 했으며, 분노 억제와 표출 수준이 낮았다.

상태-특성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기질성 특성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통제 점수가 낮다는 점인데($r = -.35, p < .001$), 이는 기질성 특성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 분노 통제와 분노 표현이 유의한 역상관($r = -.29, p < .001$)을 보였고, 분노 억제와 분노 통제간에는 상관이 없었다($r = .01, ns$).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간에는 유의한 상관($r = .44, p < .001$)을 보여,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은 표출할 가능성도 높았다.

편집성향과 우울간의 높은 상관($r = .46, p < .001$)을 고려할 때, 단순상관분석 결과는 편집중과 우울의 독특한 특성을 밝히는데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부분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2의 부분상관계수를 보면, 편집 점수의 경우 우울 점수의 영향을 통제하면 상태 분노와의 상관이 많이 줄었으며($.31 \rightarrow .16$), 분노 통제와의 상관은 많이 높아졌다($.01 \rightarrow .17$). 우울의 경우, 편집 점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면 반응성 특성분노와의 상관이 많이 줄고($.32 \rightarrow .16$), 분노 표출과의 상관도 줄어든 반면($.25 \rightarrow .14$), 분노 통제 점수와의 역상관은 오히려 높아졌다($-.23 \rightarrow -.29$). 따라서 우울과 편집성향의 가장 주된 차이는 분노 통제에 있었는데, 우울이 유의한 역부분상관을 보이는데 반해, 편집성향은 유의한 부분상관을 나타냈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분노 통제를 보이는 반면, 편집중 수준이 높아지면 분

표 1. 측정치별 평균과 표준편차($n=238$)

변인명	평균	표준편차
우울 점수	40.61	7.09
편집중 점수	21.91	10.46
상태 분노	11.72	2.95
기질성 특성분노	9.49	2.93
반응성 특성분노	10.00	2.45
분노 억제	16.35	4.13
분노 표출	14.21	3.45
분노 통제	20.55	4.33
자기개념	110.25	14.14

표 2. 변인간 상관 및 부분상관 (n=235~238)

변인명	SDS	SDSpr	PS	PSpr	SA	TA-T	TA-R	A-IN	A-OUT	A-CON
SDS										
PS	.46***									
SA	.35***	.26***	.31***	.16						
TA-T	.29***	.18**	.28***	.18**	.25***					
TA-R	.32***	.16	.40***	.30***	.21**	.55***				
A-IN	.36***	.18**	.46***	.36***	.25***	.24***	.41***			
A-OUT	.25***	.14	.30***	.20**	.17**	.62***	.48***	.44***		
A-CON	-.23***	-.29***	.02	.17**	-.05	-.35***	-.10	.01	-.29***	
SCS	-.61***	-.53***	-.41***	-.17**	-.25***	-.27***	-.27***	-.47***	-.24***	.29***

** $p < .01$ *** $p < .001$

SDS = Zung 우울척도 SDSpr = 편집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

PS = 편집척도 PSpr = 우울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

SA = 상태 분노 TA-T = 기질성 특성분노 TA-R = 반응성 특성분노

A-IN = 분노 억제 A-OUT = 분노 표출 A-CON = 분노 통제 SCS = 자기개념

노 통제 경향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상태 분노와 자기개념은 우울과의 부분 상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각각 .16 vs .26; -.17 vs -.53), 반응성 특성분노와 분노 억제는 편집증과 관련이 높았다(각각 .30 vs .16; .36 vs .18).

요약하면, 편집증은 반응성 특성분노, 분노 억제, 분노 통제 측면에서 우울보다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반해, 우울은 상태 분노, 낮은 분노 통제,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관련이 높았다. 그리고, 분노 표현양식에서 편집증은 분노 억제(.36, $p < .001$)와 표출(.20, $p < .01$), 통제(.17, $p < .01$) 순으로 유의한 부분 상관을 보였지만, 우울의 경우 억제(.18, $p < .01$)와 표출(.14)보다는 낮은 통제(-.29, $p < .001$)와 관련이 높았다.

2) 편집성향과 우울에 대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 양식의 예언력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 자기개념이 편집성향과 우울을 예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변인투입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편집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상태-특성 분노 점수와 분노

표현 양식 점수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분노 억제 점수가 편집 점수 변량의 21.7%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반응성 특성분노 점수가 5.2%, 상태 분노 점수가 2.9%를 각각 추가하였다. 그 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표 3 참조)

자기개념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추가해서 분석했을 때에도 분노 억제가 21.6%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반응성 특성분노 점수가 5.2%를 추가했다. 자기개념 점수는 3.5%를 추가해 제 3 변인이었고, 상태 분노, 분노 통제 점수가 각각 2%, 1.3%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자기개념 점수가 예언 변인에 포함되어도 분노 억제와 반응성 특성분노 수준이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우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상태-특성 분노 점수와 분노표현 양식 점수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분노억제 점수가 우울 점수 변량의 12.8%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상태분노 점수가 7.6%, 분노통제 점수가 4.9%, 반응성 특성분노 점수가 1.9%를 각각 추가하였다. 그 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표 4 참조) 따라서 우울의 경우에도 분노 억제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그러나 설

표 3. 편집성향에 대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예언력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분노 억제	.466	.217	65.32***	.83	.15	.33	5.41***
반응성 특성분노	.519	.269	43.12***	.97	.26	.23	3.77***
상태 분노	.546	.298	33.03***	.63	.21	.18	3.11**

** $p < .01$. *** $p < .001$.

표 4. 우울에 대한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예언력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분노 억제	.358	.128	34.59***	.41	.11	.24	3.79***
상태 분노	.451	.204	29.90***	.61	.14	.26	4.38***
분노 통제	.503	.253	26.33***	-.34	.09	-.21	-3.70***
반응성 특성분노	.521	.272	21.64***	.43	.18	.15	2.43**

** $p < .01$. *** $p < .001$.

명력의 정도는 12.8%로 편집성향에서의 21.7%보다는 훨씬 낮았다. 그리고 편집성향에서의 다른 점은 상태 분노가 제 2 예언변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편집성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이 없었던 분노통제 점수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분노와 낮은 분노 통제가 편집성향과 다른 점이었다. 이는 상관 및 부분 상관분석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울의 경우 분노 수준과 분노표현 양식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주요 설명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그 변인은 자기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개념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추가해서 분석했을

때, 자기개념 점수가 38.2%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 상태분노 점수가 4.4%, 반응성 특성분노 점수가 1.7%를 각각 추가 설명하였다. (표 5 참조) 따라서 우울의 경우, 상태-특성 분노와 분노표현양식보다는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가장 중요한 설명 변인이었다. 그리고 자기개념 점수가 설명 변인으로 추가된 경우, 분노억제 점수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자기개념과 분노 억제와의 높은 역상관($r = -.47$)에 따른 결과이다.

요약하면, 편집증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과 높은 반응성 특성분노에 의해 설명되었다. 우울의 경우 분노 억제와 낮은 분노 통제, 상태 분노에 의해 설명이 가능했으나 그 설명력은 편집증에 비해 훨씬 낮았고,

표 5. 우울에 대한 자기개념,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의 예언력

예언변인	R	R ²	F	B	SE B	Beta	T
자기개념	.618	.382	143.77***	-.27	.03	-.53	-10.20***
상태 분노	.652	.426	86.00***	.48	.12	.20	3.86***
반응성 특성분노	.665	.443	61.14***	.39	.15	.14	2.64**

** $p < .01$. *** $p < .001$.

부정적 자기개념이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태-특성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대로 편집증과 우울이 높은 분노 및 분노 억제와 관련되는지 알아보고, 편집증과 우울이 분노 및 분노 표현양식 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편집성향과 우울 수준은 상태 및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표출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분노 통제와의 관련성에서는 서로 달랐는데, 우울이 낮은 분노 통제와 관련되는 반면, 편집성향은 관련이 없었다. 편집증과 우울의 영향을 상호 통제된 후 분석한 부분상관 분석 결과, 편집증은 반응성 특성분노, 분노 억제, 분노 통제 측면에서 우울보다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반해, 우울은 상태 분노, 낮은 분노 통제,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관련이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편집증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과 높은 반응성 특성분노에 의해 설명되었다. 우울의 경우 분노 억제와 낮은 분노 통제, 상태 분노에 의해 설명이 가능했으나 그 설명력은 편집증에 비해 훨씬 낮았고,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종합하면, 이 결과들은 편집증이 분노 억제와 관련된다는 전통적 가정(Cameron, 1963; Freud, 1915/1957)과 최근의 설명들(Dowson & Grand, 1995; Millon & Davis, 1996)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집증이 상태 분노나 기질성 특성분노보다는 반응성 특성분노와 관련된다는 결과는 편집성향자들이 대인관계 사건에 의해 촉발된 분노를 많이 경험하며, 또한 그러한 분노들을 억제하고 장기간 보유한 결과 주된 특성인 '편집성 과민성과 억제된 적대감(Millon & Davis, 1996)'을 많이 가지게 된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우울의 경우 특성 분노보다는 상태 분노와 관련이 높았고,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노 통제에

어려움을 보였다. 편집증보다는 약하지만 분노 억제도 우울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Brody 등(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역동적 가정(Abraham, 1911/1985; Freud, 1917)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울의 경우 분노 수준이나 분노표현양식보다는 자기개념이 더 중요한 설명 변인 이어서, 부정적 자기개념이 우울의 핵심 요인임이 재 확인되었다. 자기개념은 편집증에서도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들(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1997, 1999; 이훈진과 원호택, 1998; Bentall et. al., 1994;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부정적 자기개념이 우울중에만 특정적이라는 Tarlow와 Haaga(1996)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자기개념은 우울중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지만 편집증에서도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개념과 관련해 논의되어야 할 결과는, 편집증의 경우 자기개념이 비록 독립적인 설명력을 가진 것이었으나, 분노표현양식, 특히 분노 억제 경향에 비해서는 설명력이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편집증과 우울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공통 원인을 가진다는 가정들(이훈진, 원호택, 1997; Bentall 등, 1994; Zigler & Glick, 1988)과 자기개념이 가장 강력한 설명 변인이었던 선행 연구들(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원호택, 1998)의 결과와 다른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 분노표현양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편집증에 있어 자기개념의 역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과 분노억제 경향간에 유의미한 역상관이 있었던 점에서도 자기개념과 분노 억제의 상대적 영향력과 두 변인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편집증과 우울의 관련성 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결과는, 편집증과 우울이 기질성 특성분노와 분노 억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분노 억제의 경우 편집증과의 관련성이 더 높았다는 점, 분노 통제와 반응성 특성분노, 상태 분노 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임상 증상을 연구할 때 그 증상과 관

련된 다른 증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훈진, 1997, 1999; 이훈진과 원호택, 1997, 1998)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Chadwick, Birchwood 및 Trower (1996), Chadwick과 Trower(1996)가 편집증을 방어적인 경향이 강한 피해형(또는 ‘열등한 자기’형: persecution or ‘poor me’ paranoia)과 방어적이지 않고 우울이 동반되기 쉬운 처벌형(또는 ‘나쁜 자기’형: punishment or ‘bad me’ paranoia)으로 구분해 이해하고 서로 다른 치료적 접근을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이 편집증 및 우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편집증 및 우울의 이해와 구분, 치료적 방략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노와 적대감이 편집증 및 우울의 핵심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분노 유형과 분노표현양식을 통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상 장면에서 공존병리가 장애의 전반적 양상이나 심리적 특성, 원인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준 것도 앞으로의 임상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Chadwick과 Trower(1996)가 시도한 것과 같은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증상을 보일지라도 공존 병리나 그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에 따라 치료의 과정과 주 표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편집증이 주 증상인 경우 분노 억제 경향의 완화와 건전한 분노통제의 강화, 대인관계에서의 분노반응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우울이 주 증상인 경우 분노통제 증진, 자기개념과 자존감 증진이 일차적인 치료 표적이 된다. 그렇다면, 두 증상이 비슷한 정도로 동반된 경우 어떤 측면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적 방략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 중 하나이나, 그 하위 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위 유형간 핵심 차이는 무엇인지 밝히

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분노 억제, 자기개념 등 두 증상의 공통 원인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대상 집단이 대학생 집단으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자 집단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관 및 회귀분석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증상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우울과 편집증 수준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해 비교하거나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울, 편집증, 분노 억제, 분노 통제, 자기개념 등 많은 변인에서 성 차이가 있었는데도 성 차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의 초점이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자료 분석도 상관 및 회귀분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성 차이가 주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성 차이가 존재하고 또 그 자체로도 유용한 임상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 차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Chon, Hahn, Chang, Kim 및 Oh(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분노표현양식 연구에서 각 개인이 분노표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노 표현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정도에 따라 같은 분노 억제 또는 표현 수준이라도 우울, 편집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편집증에 있어서 전통적인 투사 이론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분노표현양식과 귀인양식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편집증에서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이 나타난다는 점은 밝혀져 있지만 그러한 귀인양식과 분노표현양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이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적인 대인관계 사건 경험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Harrow, Rittenbury 및 Stoll

(1988)은 편집적 사고와 망상의 내용이 망상 시작 전에 가졌던 현실적 걱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Butler와 Braff(1991)도 망상 내용이 환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Harper(1992) 역시 피해망상 환자의 상당수는 실제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Berke, Pierides, Sabbadini 및 Schneider(1998)는 개인적 특성은 물론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편집증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시도하였다. 분노 역시 실제 경험과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정서라는 점에서 편집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체험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민병배, 원호택(1989). 관상동맥성 심장병과 성격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16-33.
- 서수균(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인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원호택, 이훈진(1997).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73-182.
- 이민선(1997). 유방암과 대응양식 및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15.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1997). 편집증에 대한 인지-동기적 접근: 개관.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23-364.
- 이훈진, 원호택(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05-125.
- 장문선, 김영환(1997). 분노표현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심장혈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97-207.
- Abraham, K. (1911/1985). Notes on the psychoanalytical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manic-depressive insanity and allied conditions. In J. C. Coyne (Ed.), *Essential papers on depress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Alexander, F. G. (1939). Emotional factors in essential hypertension: Presentation of a tentative hypothesis. *Psychosomatic Medicine*, 1, 175-17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erke, J. H., Pierides, S., Sabbadini, A., & Schneider, S. (Eds.) (1998).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Routledge: London.
- Brannon, L., & Feist, J. (1997). *Health psychology (3rd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Brody, C. L., Haaga, D. A., Kirk, L., & Solomon, A. (1999). Experiences of anger in people who have recovered from depression and never-depressed peopl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7), 400-405.

- Butler, R. W., & Braff, D. L. (1991). Delusions: A review and Integration. *Schizophrenia Bulletin*, 17, 633-647.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C., Birchwood, M.,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voices, and paranoia*.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hadwick, P. C.,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Chon, K. K., Hahn, D. W., Chang, H. K., Kim, Y. J., & Oh, D. J. (1998). Mode of anger expression, standard of ang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CHD and their spous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33-48.
- Chon, K. K., Hahn, D. W., & Lee, C. H.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18-32.
- Dowson, J. H., & Grounds, A. T. (1995). *Personality disorders: Recognition and clinical manage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erson, S. A., Goldberg, D. E., Kaplan, G. A., Julkunen, J., & Salonen, J. T. (1998). Anger expression and incident-hypertension. *Psychosomatic Medicine*, 60(6), 730-735.
- Fava, M. (1998). Depression with anger attack.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9(suppl. 18), 18-22.
- Fava, M., & Rosenbaum, J. F. (1999). Anger attacks in patients with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0(suppl. 15), 21-24.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3)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Freud, S. (1915/1957 영역판). A case of paranoia running counter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the disease.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17/198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J. C. Coyne (Ed.), *Essential papers on depress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riedman, M., & Rosenman, R. H. (1974).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t*. New York: Knopf.
- Goldstein, H. S., Edelberg, R., Meier, C. F., & Davis, L. (1988). Relationship of restin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to experienced anger and expressed anger. *Psychosomatic Medicine*, 50, 321-329.
- Harper, D. J. (1992). Defining delusion and the serving of professional interests: The case of 'paranoia'.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57-369.
- Harrow, M., Rattenbury, F., & Stoll, F. (1988). Schizophrenic delusions: An analysis of their persistence of related premorbid ideas and three major dimensions. In T. F. Oltmanns & B. A. Maher (Eds.), *Delusional beliefs*(pp 167-183). New York: Wiley.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ennedy, H. G., Kemp, L. I., & Dyer, D. E. (1992). Fear and anger in Delusional(Paranoid) disorder: The association with vio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0, 488-492.
- Kerns, R., Rosenberg, R., & Jacob, M. C. (1994). Anger expression and chronic pai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7, 57-67.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une, G. A., Kune, S., Watson, L. F., & Bahnson, C. B. (1991). Personality as a risk factor in large bowel cancer: Data from the Melbourne Colorectal Cancer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21(1), 29-41.
- MacKinnon, R. A., & Michels, R. (1971). *The psychiatric interview in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Manschreck, T. C. (1989). Delusional(Paranoid) disorders. In H. I. Kaplan and B. J. Sadock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5th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Mills, P. J., & Dimsdale, J. E. (1993). Anger suppression: its relationship to β -adrenergic receptor sensitivity and stress-induced changes in blood pressure. *Psychological Medicine*, 23, 673-678.
-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Morris, T., Greer, S., Pettingale, K. W., & Watson, M. (1981). Patterns of expression of anger and their psychological correlates in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5, 111-117.
- Okifuji, A., Turk, D. C., & Curran, S. L. (1999). Anger in chronic pain: Investigations of anger targets and intensit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7(1), 1-12.
- Sargent, C. A., Flora, S. R., & Williams, S. L. (1999). Vocal expression of anger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within dyadic interactions. *Psychological Reports*, 84, 809-816.
- Smith, T. W. (1994). Concepts and methods in the study of anger, hostility, and health. In A. W. Siegman & T. W. Smith (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 NJ: Erlbaum.
- Tarlow, E. M., & Haaga, D. A. (1996). Negative self-concept: Specificity to depressive symptoms and relation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20-127.
- Taylor, P. (1985). Motives for offending among violent and psychotic m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491-498.
- Wessely, S., Buchanan, A., Reed, A., Cutting, J., Garety, P., & Taylor, P. (1993). Acting on delusions. I: Preva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69-76.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원고접수일 2000. 2. 7

수정원고접수일 2000. 4. 7

게재결정일 2000. 4. 7 ■

The Relationships of Paranoia and Depression to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Hoon-Jin Le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paranoia and depression to the state-trait anger and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The Paranoia Scale, the Zung Depression Inventory,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he Self-concept Scale were administered to 238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anoid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reactive trait anger and anger-in. The depression scor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tate anger and low anger-control. The anger-in scor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both of paranoia and depression. However, the degree of correlation and explanatory power were higher in paranoia than in depression. In the case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self-concept is the more powerful variable than the mode of anger expression.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